

#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尹相龍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별 복지서비스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을 규명하여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등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서 독립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결혼상태, 연령,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되며,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만족도, 가구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되며, 셋째, 장애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외부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재가 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택 확대,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개선,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13개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재가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장애인, 욕구, 결정요인**

## I. 서론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하여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 전체의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한 영역인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제도화된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식·주와 의료, 여가, 교육 및 소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그들 자신만의 중요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혜택의 확대, 그리고 편의시설의 설치·확대뿐만 아니라 주택보장, 세제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욕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수요이자 특수한 목적 상태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장애인복지의 핵심인 것이다(김중천, 1997).

재가장애인의 욕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인의 욕구 실태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이들 논문들은 연구 대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가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특정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 앞의 세 가지 범주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들은 재가장애인의 주된 욕구가 생계안정과 의료혜택의 확대임을 공통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재가장애인들의 욕구 실태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변용찬 외, 2000)에서도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생계보장(60.8%)과 의료혜택의 확대(49.3%), 주택보장(13.3%), 세제혜택 확대(13.3%), 시설 확충·개

선(9.6%) 순으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실태조사의 경우 법정조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표본추출 과정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접하면서 재가장애인의 욕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재가장애인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특정한 욕구를 지니게 되는 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가장애인의 욕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욕구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낼 수 있다면 장애인복지에 투입되는 한정된 자원들을 비용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재가장애인의 욕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본 연구는 학술적인 면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재가장애인의 욕구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 본 후,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분석하여 재가장애인의 욕구실태 및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의 개념 및 장애범주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2001)에서는 1980년의 IC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7년의 ICDH-2에 이어, 2001년에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발표하면서 장애

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ICF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ICF에서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는데 즉,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기능 수준은 건강상태와 상황적 맥락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본다(김용득, 2002).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10개의 장애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변용찬 외, 2000).

## 2.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개념적 논의

욕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존과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하여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는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욕구의 개념은 다르게 나타난다(신승연, 1999). 이는 어디까지를 욕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중 사회복지서비스<sup>1)</sup>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사회적 욕구이다. 사회적 욕구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개인의 특수한 목적상태(사회적 가치·필수조건)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설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불충분·결핍된) 이는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중천, 1997).

이러한 욕구의 개념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인도 욕구의 주체인 인간이며,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취약 때문에 욕구를 충족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욕구 충족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우선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욕구의 범주 또한 비장애인 인구집단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의·식·주와 의료 및 치과보호, 교통, 레크리에이션, 교육 및 소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김중천, 1997). 박재국 등(2001)은 장애인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장애인의 경우 이동성, 공동체 근접성, 지역사회 적응, 독립적인 생활기술, 지역사회 통합, 정상화, 지원 서비스라는 장애인만의 삶의 질 구성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Davis(1990)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보(information), 동료 상담(peer counseling), 주거(housing), 기술적 도움(technical aids), 가정봉사원(personal assistance), 교통수단(transport) 그리고 편의시설(Access to the built environment) 등이 그것이다(Barnes 외, 1999에서 재인용). 또한 Barnes 등(1999)은 장애인이 교육, 고용, 주거, 환경, 이동, 교통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바로 이들 영역에서 장애인의 욕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

1)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는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사회보장 등과 같은 등가의 용어로서,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충족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3.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찰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장애유형별 장애인, 특정 서비스 대상 장애인(공공부조 수혜 대상 장애인 등), 특정 집단 장애인(여성 장애인, 노인 장애인, 교통사고 장애인 등), 그리고 재가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된다.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먼저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1989), 서울특별시(1990), 한국지체장애인협회(1993), 정립회관(1993), 한국뇌성마비복지회(1992), 이익섭·김재엽·박수경(1997) 등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체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원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혜택의 확대와 보장구 구입비용의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지체장애인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 교육과 관련한 욕구로서 특수학교와 장애인복지관의 증설 및 전문화 등이 있으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욕구로서 보도환경 개선, 공공시설 및 근린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특별운송수단 마련 등, 직업 및 고용관련 욕구로서 전문직업훈련기관의 증설 및 의무고용제 실시 등, 사회문화적 욕구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법률상담, 결혼상담 등, 그리고 주거관련 욕구로서 장애인용 주택 개발 및 보조금 지급, 공영아파트 우선권부여, 장애인관련 세계개혁 등이 지적되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욕구는 장애의 특성상 정신지체 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를 통해서 욕구가 표출된다. 정신지체 장애인 가족들은 무엇보다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 교육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박순국, 1988;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87). 또한 시설보호와 관련하여, 정신지체 장애인 가정의 70%가 시설보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시설환경의 개선을 요구하였다(문정희, 1985; 김은숙, 1997). 김나영(2001)이 정신지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지체 청소년의 욕구

는 장애인 고용사업 강화 및 생계보장,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 특수교육의 확대, 일반인의 인식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욕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서비스이고, 그 다음은 취업기회의 확대, 경제적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봉사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광석, 1994). 한편 여광조(1998)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 취업기회의 확대, 물품구입 서비스, 안내서비스, 정보이용서비스, 개안수술, 점역 및 녹음봉사, 점자 신문서비스, 도서대출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수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공부조 수혜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욕구로는 생계보장, 장애인 고용 사업의 확대(취업보장), 주택보장, 의료혜택의 확대, 교통수단 등 이용편의의 확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생계보장과 주택보장, 의료혜택의 확대는 조사응답자의 거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희택, 1997).

장애유형별 노인 장애인의 욕구를 살펴보면, 시각장애노인은 불편한 공공시설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편견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각장애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 외로움, 불편한 공공시설, 장애와 관련된 치료의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체장애노인은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불편한 공공시설, 치료의 어려움, 외로움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아 외, 2000).

이성규(2001)는 모든 장애유형을 포함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였다. 먼저 교육 욕구로는 연령별·장애유형별 특수교육활성화, 학교내 편의시설 확충이, 생활안정 욕구로는 장애수당의 현실화 및 교통수당 등 장애관련수당의 신설, 영구임대주택 입주확대가, 여

가욕구로는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 체육시설 확충이 지적되었고, 그 외의 욕구로는 대중교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요약해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은 생활안정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 편의시설 설치 확대, 취업보장,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등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의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생계보장으로 50.3%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혜택의 확대를 17.9%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주택보장(4.6%), 세제혜택 확대(4.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4.5%) 등이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는 생계보장(26.0%) 못지 않게 특수교육 확대와 개선(25.5%)을 요구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17.9%)을 의료혜택의 확대(16.6%)보다 더 중요한 요구로 제시하였다. 신장장애인은 생계보장(33.3%)보다 의료혜택 확대(45.4%)가 더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심장장애인도 상대적으로 의료혜택 확대(36.7%)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장애인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인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 연구로는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수요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박종우(1995)<sup>2)</sup>와 정신장애인의 욕구

2) 박종우의 연구에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은 Anderson·Newman(1973)의 모형이다. 그들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서비스 이용의 분석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적 서비스 이용은 개인적 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들 결정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곧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그리고 서비스 체계가 그것이다. 사회적 요인은 사회의 가치체계 또는 한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같이 모든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한 김종천(1997)<sup>3)</sup> 등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박종우와 김종천의 분석 모형을 종합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실증적 논문들에서 입증된 개별 요인들을 정리해 보았다.

### 1) 인구학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에는 연령, 성별, 결혼상태, 가구유형, 가구원수, 거주지역 등이 포함된다. 먼저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영숙(1997)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연령이 삶의 질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성규(2001)는 장애인

---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며, 서비스 체계에는 서비스의 인적·물적 자원, 그리고 공급체계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 개인적 요인은 다시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능력요인(enabling factors), 수요요인(need factors)으로 구분된다. 선행요인이란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이 한 개인이 서비스수요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며, 능력요인은 개인 또는 가족의 서비스이용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로서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접근성 등도 포함된다. 끝으로 의료이용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수요 요인은 주로 개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Anderson and Newman의 모형은 의료서비스의 이용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양상의 연구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부분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이론들이므로, 사회복지 전반에 이 이론들을 적용한다면 한 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발생 양상과 서비스 이용 결정 요인을 파악하여 서비스 공급에 관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종우는 거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서비스 체계의 영향은 제외하고, 미시적으로 개인적 요인이 서비스 이용에 주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수요를 분석하였다(김경혜, 1993; 박종우, 1995에서 재인용).

- 3) 김종천은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욕구 결정 요인을 인구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질병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과 복지 욕구와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의 연령이 구체적으로 장애수당의 현실화 및 교통수당 등 장애관련수당의 신설, 장애인우대 대출 등의 생활안정육구와 정보접근 기회의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의 여가육구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원요준(1999)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육구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복지관 이용 육구가 크다고 하였으며, 김기태 등(1999)은 여성 장애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육구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반면 신용호(2000)는 실직장애인의 취업육구에 관한 연구에서 실직 장애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육구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선우(2001b)는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연령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연령과 소득보장 육구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간접적 지표로써 연령에 따라 소득보장 육구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ima·Allen(2001)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의 장기요양보호 육구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이 장기요양보호 육구의 결정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둘째, 성별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선우(2001b)는 남성이 여성보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소득보장 육구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atz·Kabeto·Langa(2000)는 미국 장애노인의 재가서비스 수혜율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장애노인이 남성 장애노인보다 재가서비스에 대한 육구가 더 크다고 하였다. Rosenbach(1995)는 미국의 노인 및 장애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Medicare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장애인 수급자가 남성 장애인 수급자보다 서비스 육구가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Gilderbloom·Markham(1996)은 장애노인의 주택개조 육구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택개조 육구가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Lima·Allen(2001)은 성별이 장기요양보호 육구의 결정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셋째, 결혼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원요준(1999)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보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의 이용 욕구가 더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혼 또는 사별·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지지정도가 낮아 복지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경제적 도움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선우(2001b)는 기혼은 이혼·사별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간접적으로 결혼상태와 소득보장욕구와의 연관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가구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로써, 변용찬 등(2002)이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유형별로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여성가구주로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월 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비율이 64.0%로써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여성가구주로서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33.6%로 나타났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비율이 26.5%,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얻는 비율이 10.9%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유형별 월평균 소득의 차이는 소득보장 욕구에도 가구유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선우(2001b)는 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로소득이 낮다고 하였는데, 이는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보장 욕구에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이다. LaPlante 등(1996)이 미국의 장애인 통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가구유형에 따라 빈곤선 이하의 절대 빈곤 가구의 점유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 중 1인이 장애인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9.5%이고, 부부 모두가 장애인인 가구의 절대 빈곤율은 14.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소득수준의 차이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구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외부활동 불편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단독가구의 27%가 외부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 가구원과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12.2%만이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가구 유형이 가사지원 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Elwan, 1999에서 재인용). Gilderbloom·Markham(1996)의 장애인 주택개조 욕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구유형은 주택개조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장애인 단독가구의 장애인이 가장 높은 욕구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다섯째, 가구원 수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선우(1997, 2001a, 2001b)는 장애인 가구의 특성 중 부조가구원 수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형태, 그리고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장애인의 소득보장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urse(1998)는 1993년 미국의 장애인 조사를 재분석한 연구에서,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여섯째, 거주지역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노영남 등(1990)은 도시거주자들보다 농촌거주자들의 생활욕구 충족도가 더 높은 이유를 농촌거주자들이 도시거주자들에 준거하여 생활욕구 충족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의 집단 및 자신들의 과거생활에 근거하여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 2)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주택형태,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경제활동상태, 생활보호대상여부, 가구소득 등이 포함된다. 먼저 주택형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박종우(1995)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임대주택거주자일수록 복지욕구가 크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수준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서, 이영숙(1997)은 지체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성규(2001)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교육욕구, 여가욕구, 사회환경적 욕구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신용호(2000)는 실직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실직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욕구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선우(2001b)는 교육년한이 높을수록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육년한과 소득보장욕구와의 관련을 보여주는 간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영숙(1997)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직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선우(2001b)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서비스직, 농업, 기능직, 노무직 등 다른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보다 근로소득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직업에 따라 소득보장 욕구가 차이가 있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소득수준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영숙(1997)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진기남·김상희·조선진(1999)도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요준(1999)은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이 소득수준이 높은 장애인보다 사회복지관 이용 욕구가 크다고 하였으며, 조영주(1997)는 지역사회중심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욕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수입에 따라서 원하는 도움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 밖에, 경제활동상태, 생활보호대상 여부, 가구소득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로서, Banfalvy(1994)는 장애인의 취업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허준수(2000)는 장애인 가구가 포함된 중소도시지역의 저소득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보호 대상의 중

류 및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 고용, 주거, 여가 등의 욕구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선우·여유진(2000)은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하였다.

### 3) 장애 요인

장애 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장애기간 등이 포함된다. 장애유형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서, 우선 윤경아 등(2000)은 장애노인의 장애유형에 따라 경험하는 문제의 심각도는 건강, 경제력, 장애와 관련된 치료의 세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즉 물리치료 서비스는 지체장애인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보장구지급서비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무료식사, 가정봉사원과견사업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기태(1999)에 따르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여성이 정신지체를 가진 여성보다 취업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정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이영숙(1997)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등급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성규(2001)는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구체적으로 생활안정욕구 및 여가욕구, 사회환경적 욕구 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권선진(2002)은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장애정도의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에 따라 보호수발 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김기태(1999)는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는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을수록 낮아진다고 하였다. 신용호(2000)는 실직장애인의 취업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실직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취업욕구는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이선우(2001b)는 일

상생활 도움필요도와 외부활동 불편정도는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소득보장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로서, 이영숙(1997)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권선진(2002)은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보호수발 욕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요준(1999)은 장애인의 건강이 나쁠수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욕구가 높다고 하였으며, Gilderbloom·Markham(1996)은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택개조 욕구가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 외, 사회적 차별경험 및 장애기간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순희(2000)는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차별 경험이 환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선우(2001b)는 장애기간이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장애기간이 길수록 근로소득이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장애기간이 소득보장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케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 2차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앞서의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한 박종우(1995)의 모형과 김종천(1997)의 모형을

종합하여 인구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장애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

변수명	범주
인구학적 요인	
성별	여성(기준범주), 남성
연령	세
결혼상태	유배우(기준범주), 미혼, 이혼·사별
가구유형	장애인 가구주 가구, 비장애인 가구주 가구
가구원수	명
거주지역	동부(기준범주), 읍면부
사회환경적 요인	
소득	만원
직업	전문·사무직(기준범주),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술직, 단순노무직
경제활동상태	취업(기준범주), 비경제활동, 실업
교육연한	년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1점) ~ 매우 불만족(4점)
가구소득	만원
주택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연립·다세대주택, 여관, 비닐하우스 등)
주택소유형태	자가(기준범주), 비자가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비수급자(기준범주), 수급자
장애 요인	
장애유형	신체장애(기준범주), 정신장애, 내부장애
장애기간	년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필요 없음(1점) ~ 매우 필요(5점)
외부활동 불편도	매우 불편(1점) ~ 거의 불편하지 않음(4점)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1점) ~ 매우 건강이 나쁜 편(4점)
사회적 차별경험	매우 차별(1점) ~ 거의 차별 없음(4점)

우선 인구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유형, 가구원 수, 거주지역이 포함되며, 사회환경적 요인에는 소득,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생활만족도, 가구 소득,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



자) 여부가 포함된다. 그리고 장애 요인에는 장애유형, 장애기간, 일상생활 도움필요도, 외부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이 포함된다. 이들 독립변수의 선정에서 변수들간 상관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들 독립변인 중에서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주는 로지스틱분석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 변수의 값을 다음과 같이 부호화였다(표 1 참조).

〈표 2〉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들

변수명	정의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택 확대 건물·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개선 시설 확충·개선 여가기회 확대	0: 비우선적 욕구 1: 우선적 욕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이다. 본 연구에서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는 총 13개의 욕구 중에서 재가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2개의 욕구로 정의된다.<sup>5)</sup>

4)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기초보장수급자’라는 용어 대신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보장수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13개의 욕구 중에서

13개의 재가장애인의 욕구는 생계보장, 의료혜택 확대, 세제혜택 확대, 건물·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주택보장, 결혼상담·알선, 인식개선,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특수교육 확대·개선, 시설 확충·개선, 그리고 문화·여가 기회 확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분석을 위해 이들 13개 종속변수의 값을 우선적 욕구인 경우에는 1로, 비우선적 욕구인 경우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4,125가구이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WINDOWS용 SPSS 10.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장애 요인 중 어떠한 요인들이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로짓(binominal logit) 형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가장 필요로 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선택된 2가지 욕구를 우선적 욕구로 간주하였고,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11개의 욕구에 대해서는 비우선적 욕구로 간주하고 자료를 변환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 1) 인구학적 특성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써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전체의 61.2%, 여자가 38.8%로써 남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의 32.4%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이 전체의 61.8%, 이혼·사별 장애인이 23.5%, 미혼 장애인이 14.6%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전체의 49.7%가 읍·면지역에, 20.6%가 중소도시에, 16.5%가 광역시에, 그리고 13.1%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가 54.1%, 비장애인이 가구주인 가구가 45.9%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2인 가구가 전체 장애인 가구의 26.6%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 가구(22.3%), 5인 이상 가구(21.1%), 3인 가구(2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단독 가구도 전체의 9.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 참조).

#### 2) 사회환경적 특성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자가 31.3%, 무학이 25.0%, 그리고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7.4%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학력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중 취업자 비율은 36.4%에 불과했으며, 이들 취업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농·어업직이 36.0%, 단순 노무

직이 21.4%, 반면에 전문·사무직은 9.6%에 불과하여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80.1%에 이르고 있으며,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2.0%에 지나지 않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전체 가구의 55.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4.9%에 불과했다.

〈표 3〉 재가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성별	남	2,525	61.2
	여	1,600	38.8
연령	0~19세	248	6.0
	20~34세	469	11.4
	35~49세	961	23.3
	50~64세	1,111	26.9
	65세 이상	1,336	32.4
결혼상태	미혼	580	14.6
	유배우	2,449	61.8
	이혼·사별	933	23.5
거주지역	서울시	540	13.1
	광역시	682	16.5
	기타시	851	20.6
	읍면지역	2,052	49.7
가구유형	장애인 가구주 가구	2,232	54.1
	비장애인 가구주 가구	1,893	45.9
가구원수	1인 가구	390	9.5
	2인 가구	1,097	26.6
	3인 가구	845	20.5
	4인 가구	921	22.3
	5인 이상 가구	872	21.1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7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파트로서 18.5%, 연립·다세대 주택 6.5%, 기

타(여관, 비닐하우스 등)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68.3%, 전세 15.2%, 월세·사글세 10.6%, 무상이 6.0%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재가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교육수준	무학	1,016	25.0
	초등학교	1,275	31.3
	중학교	571	14.0
	고등학교	906	22.3
	대학교 이상	299	7.4
	계	4,067	100.0
경제활동상태	취업	1,443	36.4
	실업	2,052	51.8
	비경제활동	468	11.8
	계	3,963	100.0
직업	전문·사무직	139	9.6
	판매·서비스직	261	18.1
	농·어업직	520	36.0
	기술직	214	14.8
	단순노무직	309	21.4
	계	1,443	100.0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3,275	80.1
	50~100만원 미만	405	9.9
	100~200만원 미만	325	8.0
	200만원 이상	83	2.0
	계	4,088	100.0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161	28.1
	50~100만원 미만	1,123	27.7
	100~200만원 미만	1,227	30.2
	200~300만원 미만	349	8.6
	300만원 이상	199	4.9
	계	4,059	100.0
주택형태	단독주택	2,889	70.0
	아파트	764	18.5
	연립·다세대 주택	268	6.5
	기타	204	4.9
	계	4,125	100.0

&lt;표 4 계속&gt;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주택소유형태	자가	2,816	68.3
	전세	626	15.2
	월세·사글세	437	10.6
	무상	246	6.0
	계	4,125	100.0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	38	0.9
	대체로 만족	1,110	27.1
	불만족한 편	2,192	53.5
	매우 불만족	755	18.4
	계	4,095	100.0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수급자	688	16.7
	비수급자	3,437	83.3
	계	4,125	100.0

장애인들은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활에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28.0%에 지나지 않으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2.0%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수급자 가구는 전체의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장애관련 특성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전체의 43.6%로써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15.1%), 시각장애(12.4%), 청각장애(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장애범주 확대에 의해 새로 추가된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경우 각각 전체의 3.8%, 1.6%,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보유 기간은 10년 미만이 전체의 48.1%로써 가장 높았으며, 30년 이상이 22.2%, 10~20년 미만이 20.2%, 20~30년 미만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재가장애인의 장애관련 특성

(단위: 명, %)

변수	범주	빈도	비율
주된 장애	지체장애	1,799	43.6
	뇌병변장애	622	15.1
	시각장애	512	12.4
	청각장애	453	11.0
	언어장애	86	2.1
	정신지체장애	278	6.7
	발달장애(자폐증)	30	0.7
	정신장애	156	3.8
	신장장애	67	1.6
	심장장애	122	3.0
	계	4,125	100.0
장애기간	10년 미만	1,983	48.1
	10년~20년 미만	835	20.2
	20~30년 미만	391	9.5
	30년 이상	916	22.2
	계	4,125	100.0
외부활동 불편정도	매우 불편	1,230	31.9
	약간 불편	1,274	33.1
	불편하지 않은 편	320	8.3
	거의 불편하지 않음	1,029	26.7
	계	3,853	100.0
일상생활 도움정도	전혀 필요 없음	1,903	46.1
	거의 필요 없음	614	14.9
	일부 필요	782	19.0
	대부분 필요	420	10.2
	매우 필요	405	9.8
	계	4,124	100.0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156	3.8
	비교적 건강	1,500	36.4
	건강이 나쁜 편	1,740	42.2
	매우 건강이 나쁨	724	17.6
	계	4,120	100.0
사회적 차별정도	거의 없다	1,984	48.7
	가끔 있는 편이다	901	22.1
	많은 편이다	766	18.8
	매우 많다	422	10.4
	계	4,073	100.0

장애인의 외부활동 불편 정도와 일상생활 도움정도,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외부활동시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1.9%, 대

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3.1%에 달하였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3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장애인의 49.6%가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외부활동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취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한 정도를 살펴보면, 29.2%의 장애인들이 비교적 많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6> 과 같다.

<표 6> 재가장애인의 연속변수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53.4	24.31
교육연한(년)	6.9	4.96
월평균 소득(만원)	79.1	64.66
가구원 수(명)	3.3	1.44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100.8	87.79
장애기간(년)	17.9	26.33
생활만족도(점)	2.89	0.69
일상생활도움 필요도(점)	2.23	1.38
외부활동 불편도(점)	2.30	1.18
주관적 건강상태(점)	2.74	0.79
사회적 차별경험(점)	2.94	1.08

## 2.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 실태

전체 13개의 욕구 중에서 우선적 욕구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생계보장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60.8%가 생계보장을 우선적 욕구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료혜택의 확대로써 전체의 49.3%가 우선적 욕구



로 응답하였으며, 세계혜택의 확대와 주택보장을 우선적 욕구로 응답한 장애인은 각각 전체의 13.3%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우선적 욕구로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9.6%,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적 욕구로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8.1%,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 확대를 우선적 욕구로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7.4%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우선적 욕구들에 대한 빈도를 살펴보면, 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4.6%), 건물·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3.9%), 특수교육의 확대 및 개선(3.4%), 가사지원서비스(3.2%), 결혼상담 및 알선(2.6%), 문화 및 여가기회의 확대(2.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 실태

(단위: 명, %)

욕구	우선적 욕구	비우선적 욕구	계
생계보장	60.8 (2,507)	39.2 (1,618)	100.0 (4,125)
의료혜택 확대	49.3 (2,034)	50.7 (2,091)	100.0 (4,125)
세계혜택 확대	13.3 (547)	86.7 (3,578)	100.0 (4,125)
건물, 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3.9 (162)	96.1 (3,963)	100.0 (4,125)
가사지원 서비스	3.2 (130)	96.8 (3,995)	100.0 (4,125)
주택보장	13.3 (549)	86.7 (3,576)	100.0 (4,125)
결혼상담·알선	2.6 (107)	97.4 (4,018)	100.0 (4,12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8.1 (335)	91.9 (3,790)	100.0 (4,125)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7.4 (307)	92.6 (3,818)	100.0 (4,125)
재활보조기구 개발·보급	4.6 (189)	95.4 (3,936)	100.0 (4,125)
특수교육 확대·개선	3.4 (139)	96.6 (3,986)	100.0 (4,125)
시설 확충·개선	9.6 (398)	90.4 (3,727)	100.0 (4,125)
문화·여가 기회의 확대	2.1 (87)	97.9 (4,038)	100.0 (4,125)

### 3.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

6)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우선적 욕구 실태 결과 전체 장애인 중 5% 이상이 우선적 욕구로 응답한 욕구에 한해서 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욕구는 생계보장 욕구(60.8%), 의료혜택 확대(49.3%), 세계

## 1) 생계보장 욕구

생계보장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구원 수, 가구유형,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만족도,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장애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차별경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인 가구원 수의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 수가 늘어날 수록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유형의 경우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장애인에 비해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이는 이선우(2001a)의 연구에서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이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가구소득보다 낮다는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써 가구주 구분에 따른 가구의 유형이 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직업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비해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타 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보다 근로소득이 높다고 한 이선우(2001b)의 연구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이 생계보장 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비경제활동이나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취업 장애인보다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장애인의

---

혜택 확대(13.3%), 주택보장(13.3%), 시설확충·개선(9.6%),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8.1%),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7.4%) 등이다.

근로소득이 교육연한에 비례한다고 한 이선우(2001b)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보장수급자 여부의 경우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허준수(2000)의 연구에서 기초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 욕구에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수준이 낮고 또한 수급자 일부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급여 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무주택 장애인이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에 비해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요인 중 장애유형의 경우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보다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직업능력이 낮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사회적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생계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계보장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장애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장애인의 장애정도가 생활안정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성규(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생계보장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던 연령(이성규, 2001)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표 8 참조).

## 2) 의료혜택 확대 욕구

의료혜택 확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장애유형, 장애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생계보장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1.561	
가구원 수	0.054**	1.056
직업(기준범주=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0.505*	1.657
농·어업직	0.388*	1.473
기술직	0.700**	2.013
단순노무직	0.723**	2.060
경제활동상태(기준범주=취업)		
비경제활동	0.725***	2.065
실업	0.645***	1.907
교육연한	-0.027**	0.973
생활만족도	0.436***	1.546
가구소득	-0.005***	0.995
주택소유형태(기준범주=자가)		
비자가	0.177*	1.193
기초보장수급자여부(기준범주=비수급자)		
수급자	0.738***	2.091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장애)		
정신장애	0.504**	1.656
내부장애	-0.141	0.869
주관적 건강상태	0.147*	1.158
사회적 차별경험	0.105**	1.111
-2 Log Likelihood=4439.895 $\chi^2= 548.819$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이는 장애인의 연령이 장기요양보호 욕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Lima·Allen(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결국 고령화로 인해 장애가 만성화되고 심해지면서 지속적인 의료처치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택소유

형태에 있어서는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이 무주택 장애인에 비해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또한 기초보장 비수급자가 수급자에 비해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은 생계보장 보다 의료혜택 확대를 더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의료혜택 확대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1.561	
연령	0.011***	1.011
가구소득	-0.001*	0.999
주택소유형태(기준범주=자가)		
비자가	-0.384***	0.681
기초보장수급자여부(기준범주=비수급자)		
수급자	-0.307**	0.736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장애)		
정신장애	-0.222	0.801
내부장애	0.733***	2.081
장애기간	0.005**	0.995
주관적 건강상태	0.288***	1.334
-2 Log Likelihood=4867.707 $\chi^2= 297.197$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장애요인 중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내부장애인이 신체장애인보다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장애인의 경우 노동력은 상실된 반면 지속적인 의료처치를 요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또한 장애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 또한 같

7)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신장장애인의 경우 287500원, 심장장애인의 경우 153700원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월평균 의료비 83300천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의료혜택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입증되었던 성별(Rosenbach, 1995; Lima·Allen, 2001)과 가구유형(Rosenbach, 1995)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 3) 세제혜택 확대 욕구

세제혜택 확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결혼상태, 가구유형, 가구원수, 직업,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장애유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세제혜택 확대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2.025	
결혼상태(기준범주=유배우)		
미혼	-0.539*	0.583
사별·이혼	-0.207	0.813
가구유형(기준범주=비장애인가구주 가구)		
장애인 가구주 가구	0.550**	1.734
가구원 수	0.121*	1.129
직업(기준범주=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0.258	1.295
농·어업직	0.564*	1.758
기술직	0.270	1.310
단순노무직	0.280	1.323
주택소유형태(기준범주=자가)		
비자가	-0.766***	0.465
기초보장수급자여부(기준범주=비수급자)		
수급자	-0.636**	0.529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장애)		
정신장애	-0.520*	0.595
내부장애	0.289	1.335
-2 Log Likelihood=2777.250		$\chi^2= 186.905$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인구학적 요인 중 결혼상태의 경우 유배우 장애인이 미혼 장애인에 비해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가구주 가구의 장애인보다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직업에 있어서는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비해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의 경우 주택 소유 장애인이 무주택 장애인에 비해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으며, 기초보장수급자 여부에 있어서는 비수급자가 수급자에 비해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들은 정부가 간접적 소득보장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의 경우 신체장애인이 정신장애인에 비해 세제혜택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 4) 주택보장 욕구

주택보장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가구원수, 소득, 직업,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기초보장수급자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수에 있어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마찬가지로 주택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소득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주택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기술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비해 주택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형태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 단독주택과 기타의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주택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단독주택 및 기타의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일수록 무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무주택 장애인이 주택 소유 장애인보다, 그리고 기초보장수급자 여부에 있어서는 수급자가 비수급보다 각각 주택보장 욕구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초보장 수급자의 주택보장 욕구가 높은 것은 허준수(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기초보장 수급자의 절대 다수가 무주택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 주택보장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3.121	
연령	-0.015**	0.985
가구원 수	0.157**	1.170
소득	-0.004*	0.996
직업(기준범주=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0.467	1.595
농·어업직	0.356	1.428
기술직	0.784*	2.190
단순노무직	0.949**	2.584
주택형태(기준범주=아파트)		
단독주택	0.470**	1.600
기타(연립·다세대주택 등)	0.648**	1.911
주택소유형태(기준범주=자가)		
비자가	1.614***	5.021
기초보장수급자여부(기준범주=비수급자)		
수급자	0.296*	1.344
-2 Log Likelihood=2571.375 $\chi^2= 403.849$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 5) 인식개선 욕구

인식개선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거주지역, 교육연한,



가구소득, 장애유형, 주관적 건강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인식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으며, 거주지역에 있어서는 동부(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읍면부(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 인식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도시 거주 장애인이 농·어촌 거주 장애인보다 대인접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더 많이 경험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인식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요인 중 장애유형에 있어서는 정신장애인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인식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내부장애인에 비해서는 신체장애인의 인식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 욕구가 특히 높은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인식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인식개선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0.800	
연령	-0.025***	0.975
거주지역(기준범주=동부)		
읍면부	-0.287*	0.751
교육연한	0.038*	1.038
가구소득	0.002**	1.002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장애)		
정신장애	-0.898***	0.407
내부장애	-1.543**	0.214
주관적 건강상태	-0.292**	0.747
-2 Log Likelihood=1885.550 $\chi^2= 259.137$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6)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직업, 경제활동상태, 교육연한, 생활만족도, 주택소유형태, 장애유형, 외부활동 불편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0.734	
직업(기준범주=전문·사무직)		
판매·서비스직	0.104	1.109
농·어업직	-0.693*	0.500
기술직	-0.193	0.825
단순노무직	-0.503	0.605
경제활동상태(기준범주=취업)		
비경제활동	-0.225	0.799
실업	-0.584*	0.558
교육연한	0.042**	1.043
생활만족도	-0.450***	0.638
주택소유형태(기준범주=자가)		
비자가	-0.412**	0.662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장애)		
정신장애	-0.965**	0.381
내부장애	-0.153	0.858
외부활동 불편도	-0.164*	0.849
주관적 건강상태	0.199*	1.220
-2 Log Likelihood=1939.543 $\chi^2= 98.138$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사회환경적 요인 중 직업의 경우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장애인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으며, 경제활동상태에 있어서는 취업 장애인이 실업 장애인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마찬가지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업 장애인의 욕구가 높은 것은 출퇴근의 어

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연한에 있어서는 교육연한이 길수록, 반면에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주택 소유 장애인이 무주택 장애인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요인 중 장애유형의 경우 신체장애인이 정신장애인에 비해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체장애의 특성상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부활동 불편도에 있어서는 외부활동 불편도가 심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 장애인이 신체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구속받는다는 점에서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7) 시설확충·개선 욕구

시설확충·개선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연한, 생활만족도,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장애유형,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시설확충·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 장애인이 미혼 장애인에 비해 시설확충·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환경적 요인 중 주택소유형태의 경우 주택 소유 장애인이 무주택 장애인에 비해 시설확충·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교육연한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설확충·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요인 중 장애유형의 경우 신체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이 시설확충·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신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시설 입소 의사가 더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또한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수록 시설확충·개선 욕구가 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시설 입소를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시설 확충·개선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계수	Exp(B)
상수	-1.824	
연령	-0.025***	0.975
결혼상태(기준범주=유배우)		
미혼	-0.453*	0.636
사별·이혼	0.276	1.318
교육연한	0.075***	1.078
생활만족도	-0.273**	0.761
가구소득	0.002*	1.002
주택소유형태(기준범주=자가)		
비자가	-0.496***	0.609
장애유형(기준범주=신체장애)		
정신장애	0.443*	1.558
내부장애	-0.067	0.935
일상생활 도움 필요도	0.222***	1.248
-2 Log Likelihood=2165.572 $\chi^2= 205.565$ df=28		p=0.000

주: 유의변수 \* p<0.05; \*\* p<0.01; \*\*\* p<0.001

## V. 결론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재가장애인들은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생계보장(60.8%), 의료혜택 확대(49.3%), 주택보장(13.3%), 세제혜택 확대(13.3%), 시설확충·개선(9.6%), 인식개선(8.1%),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7.4%)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장애인의 이러한 우선적 욕구들은 주로 의·식·주와

이동에 관계된 것들로써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욕구의 범주에 관한 논의에서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들인 기본적(1차적, 기초적) 욕구들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최우선적 의무를 다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가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장애 특성이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유형,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직업, 기초보장 수급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장애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모두 장애인의 경제상태를 설명해 주는 변수들이라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가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우선순위 욕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여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장애인복지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경제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장애인의 우선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앞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생계보장 욕구와 관련한 정책으로서 전문·사무직 외 타 직종 종사자의 생계보장 욕구가 높은 것을 고려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에 이들 직종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보호고용·지원고용 등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취업하게 하거나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사업의 융자금액을 높여 자영업 창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sup>8)</sup> 또한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를 개선하여 생계급여를 현실화하고 아울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

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sup>9)</sup> 특히 정신장애인의 생계보장 욕구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이 보호고용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의 확대시 역시 정신장애인이 먼저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에서 제외되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시책을 확대하여 현행 장애인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장애인의 연평균 추가비용 1,894,800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둘째, 의료혜택 욕구와 관련된 정책으로서 내부장애인의 의료혜택 확대 욕구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현재 만성 신부전증 투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전무한 실정인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내부장애인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초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인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언어치료·작업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도록 하며, 또한 종합병원과 가정 사이의 중간단계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셋째,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욕구와 관련한 정책으로서 먼저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시설을 확대하고, 특히 최근의 잦은 사고로 인해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의

8) 장애인자립자금 용자금액은 2002년 현재 가구당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 금액으로는 자영업 창업이 어려우므로, 용자금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9) 장애수당의 경우 지급대상이 기초보장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급액 또한 월 50,000원으로써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 158,000원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기초보장 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에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택시 운영 확대, Door to Door 서비스 제도 도입 등 종합적인 장애인 운송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보장 및 시설 확충·개선과 욕구와 관련한 정책으로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가구원수를 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용 주택 우선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원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 자격을 완화하여 현행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무연고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되, 정신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의 시설 입소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생활시설과 요양시설부터 먼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장애유형의 시설에 비해 정신지체생활시설의 입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에 비추어, 생활시설 입소 자격 완화로 충족되지 않는 정신장애인의 시설 입소 수요는 공동생활가정의 대폭적인 확충을 통해 흡수해야 할 것이다.<sup>10)</sup>

마지막으로 인식개선 욕구와 관련한 정책으로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반시민들이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TV,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서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10) 2001년 12월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 대비 입소율을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시설이 84.8%, 청각·언어장애인시설이 69.4%, 시각장애인시설이 67.5%,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이 93.3%, 요양시설이 91.1%로써 모든 시설에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 참 고 문 헌

- 권선상,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복지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내부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14집, 2002.
- 김광석, 「시각장애인 가족의 부담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기태, 「여성장애인의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7호, 1999.
- 김나영, 「정신지체 청소년에 대한 욕구조사 : 소비자과 제공자의 관점들을 통합하는 접근」,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용득,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장의 실천 과제」, 노틀담복지관 개관 1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2.
- 김용득·유동철,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김종천, 「정신장애인의 욕구 결정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노영남 외, 「한국인 생활욕구의 요인구조 및 관련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제1호, 1990.
- 박재국·이미숙, 「장애인의 삶의 질(QOL)의 연구동향」, 『특수교육재활과 학연구』 제40권 2호, 2001
- 박종우, 「서울시민의 사회복지 수요 관련요인」, 『서울시정연구』 제3권 제2호, 1995.
- 변용찬·김성희·윤상용,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변화순·송다영·김영란,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2001.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1.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현황」,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신승연, 「노인복지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평택시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3집, 1999.

신용호, 「우리나라 실직장애인의 취업 욕구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

양희택, 「공공부조 수혜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여광조,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이 느끼는 부담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원요준,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연관을 지니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윤경아·이윤화·이익섭, 「장애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0권 3호, 2000.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1997.

이선우·여유진, 「실업가구 복지욕구의 변화」, 『보건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2000.

이선우 외,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a.

이선우, 「장애인의 취업형태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1권 제2호, 2001b.

이성규, 「장애인의 취업욕구와 직업재활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1권 제2호, 2001.

이순희, 「HIV/AIDS 환자의 삶의 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익섭·김재엽·박수경, 「지체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4권, 1997.
- 진재일,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제7권 제4호 통권 제29호 pp.685-716, 2001.
- 조명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응용과학연구』 제9권 제1호, 2001.
- 조영주, 「지역사회중심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욕구 분석」, 경성대 정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진기남·김상희·조선진, 「장애인의 삶의 질-개념적 모델의 역할-」, 『장애인고용』 제28호, 199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허준수, 「중소도시지역의 저소득 실업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16권 제2호, 2000.
- Ann Elwan, *Poverty and Disability: A Survey of the Literature*, 1999.
- Banfaly, C., *Quality of Life and Unemployment: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 Hungary*, Cambridge, Booking Books, 1994.
- Barnes, C., Mercer, G. and Shakespeare, T.,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Polity Press, 1999.
- Culyer, A., *Needs and the National Health Service*, Martin Robertson, London, 1976.
- Kurse, D., *Persons with Disabilities: Demographic, income, health care characteristic*, Monthly Labor Review September, 1998.
- Foster, P., *Access to Welfare*, Macmillian, London, 1983.
- Gilderbloom, J., Markham, J., "Housing Modification Needs of the Disabled Elderly: What Really Matter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28, No.4, 1996.

Handley, P., "Trouble in Paradise - a disabled person's right to the satisfaction of a self-defined need: some conceptual and practical problems", *Disability & Society*, Vol.16, No.2, 2000.

Katz, S., Kabeto, M. and Langa, M., "Gender Disparities in the Receipt of Home Care for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y in the United States", *JAMA*, Vol.284, No.23, 2000.

Lima, J. and Allen, S., "Targeting Risk for Unmet Need: Not Enough Help Versus No Help at All",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56B, No.5, 2001.

Lowy, L., *Social Work with the Aging*, Harper & Row, New York, 1979.

Miller, D., *Social Justice*, Oxford, Clarendon Press, 1976.

Narsra M. Shah and Muhammad Anwar, *Basic Needs, Women, and Development: A Survey of Squatters in Lahore*, Pakistan, 1986.

Oliver, M.,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Macmillan, 1996.

Rosenbach, M., "Access and satisfaction With Disabled Medicare Population", *Health Care Finance Review*, Vol.17, No.2, 1995.

*Summary*

---

##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the Prior Needs of Domestic Disabled People**

*Yoon, Sang Yong*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and contributes to rai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welfare service for disabled people. To achieve this, this study used logistic regression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ree things. First, demographic variables include sex, marital status, age, household typ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residential area. Second, socio-environmental variables include income, occupation, status in economic activity, educational attainment, level of satisfaction with daily lives,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Third, disability variables include disability type, period of disability,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and status of health an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Dependent variables include livelihood security, improvement in access to medical service, improvement of tax treatment, promotion of barrier-free environment, service for household affairs, housing security, counselling and intercession of marriage, improvement in public attitudes toward disabi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improvement and wide supply of assistive rehabilitation systems, provision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more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opportunities for culture and leisur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disability type, family income, type of possession of house, occupation and status in the Basic Security System affect to the prior needs of disabled people.

All variables, except the type of disability, are found to b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 This consequently identifies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as that major factor influencing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in planing and carrying out policies to fulfill the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account the type of disability and economic status of disabled people.